

시끌벅적 e-스타



현충일 인터넷 태극기 추모

'현충일, 그냥 못 넘긴다' 현충일을 맞아 다양한 현충일 관련 동영상 UCC가 올라오고 리본이나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벌어지는 등 인터넷 세상이 달아올랐다. 네티즌들에게 현충일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네티즌들과 공유하며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현충일 자녀가 집에 조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는 동영상,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찍어 올린 동영상, 쉬는 날 축구 경기를 하면서 묵념하는 동영상 등 다양하다.

미니홈피, 메시지에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이는 것. '현충일 노는 날'이다. 하지만 놀기 위한 날은 아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자"는 짧은 글과 2분56초짜리 동영상은 지난 5월 올라온 뒤 하루 동안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클릭하며 인기 동영상으로 떠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삼일절에 이어 현충일 6일 '사이버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였다. 진흥원은 현충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弔旗) 및 사이버 태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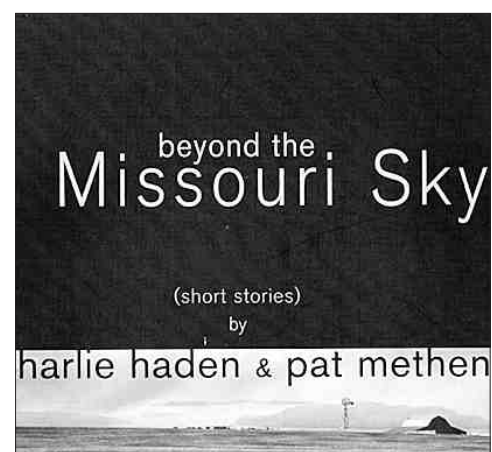
살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빈 벽을 바라보는 일이 지겨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걷거나 차를 타거나,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봐야 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싫증을 느낄 때는 창밖의 경치를 능동적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다스리는 방법에 속한다. 내 마음의 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물과 자연, 거기에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 까지 다양하다. 아주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 역시 공존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창을 통해, 내 마음의 환기를 위해서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나의 창에 담을 수는 없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진 창의 크기는 그리 대단히 크거나 정교 치밀하지도 못한 까닭이다.

사잇는 거목을 못보는 경우가 우리에게 흔히 존재하는 할까? "그래 그건 사실이야"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고백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37년에 태어나서, 1950년대부터, 2007년 지금까지 약 50년의 세월을, 있는줄은 알고 있었지만, 음악 안에서, 보통의 듣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감은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거목', 그의 이름은 찰리 헤이든(charlie haden), 그는 '베이스' 연주자(basist)다. 여기 소개하는 음반은, 그가 기타리스트 '패 메스니(pat metheny)'와 연주한 '듀엣'의 음악들을 담은 음반이다. 음반 타이틀은 '미주리 스카이(missouri sky)'. 음악을 듣다 보면 '메스니'의 기타 선율이 먼저 마음에 와 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상의 핵심은 베이스와 기타의 '하모니'에 있다. 음악에 집중하되, 하모니에 신경을 써 보는 것, 음악속의 풍경을 즐겨라

음악속의 풍경을 즐겨라

게다가 우리들의 창은 카메라의 렌즈와도 같아서, 마음의 육구에 알 맞는 것에만 줌인(zoom in)되는 바람에, 창밖의 풍경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창의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때가 많은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귀' 역시 그와 같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가지의 소리, 혹은 음악을 들을 때, 거기에 눈을 보는 것과 같은 풍경, 혹은 경치가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풍경 속에는 쉽고 빠르게 눈에 띄는 사물이 있는가 하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혹은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리 잘 인식되지 못하는 사물이 있다. 풍경 속의 사물을 음악 속에서 각각의 악기라고 생각해 보면, 눈에 쏘옥 들어오듯이, 귀에 쏙 들어오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음악 속에는 존재 하지만, 그냥 흘러 들게 되는 악기가 있다. 봄날의 화려한 꽃들이 정신을 끈 나머지, 저만큼 뒤에, 아주 오랜 세월을, 풍상에도 의젓하게

악속의 풍경을 즐기는 방법이 되지 않음지. '양화소록(자자 강회맹)'에 나온작한 일등품 '꽃나무'와 '거목'이 마음의 창밖에 좋은 그림으로 존재하는 풍경, 거기에 미주리의 짧은 사진 역시 마음에 남겨지기를. <음악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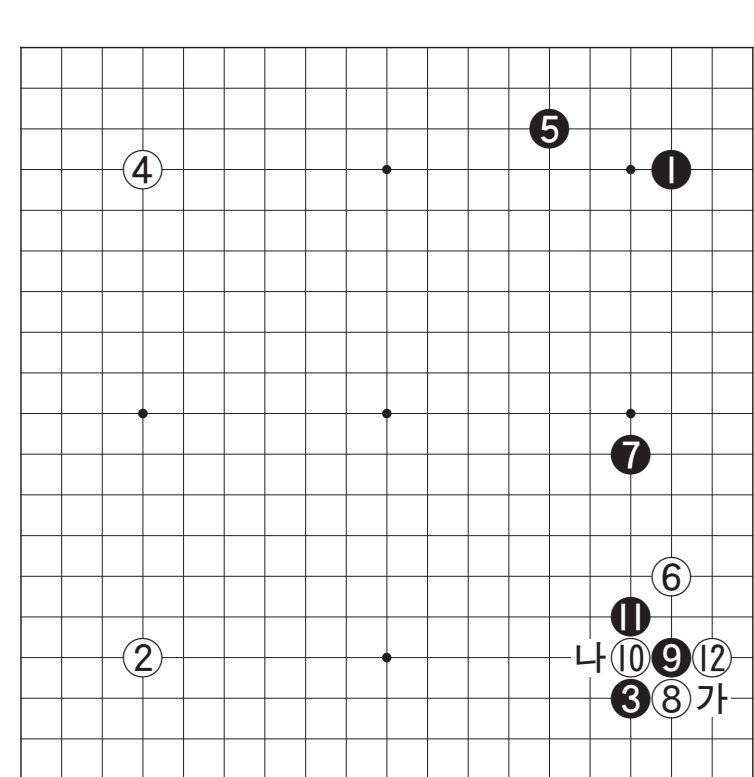
뉴스퀴즈

67.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것은 지난 1987년 '씨받이'로 강수연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20년만입니다. 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동양계 여배우로는 홍콩 장만위(2004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① 전도연 ② 이영애 ③ 전지현 ④ 송혜교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와 고급 정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일 속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7일(음 4월 22일 壬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6회 광일백 직장대항 1회전. 이번에는 1회전 또 다른 한판으로 광주시청의 백동원 5단과 조선대학교 최한용 교수의 대결이다. 이번 대회는 리그전과 토너먼트의 장점을 결합한 '스위스리그'로 진행되고 있다. 명칭에 '리그'(모두 한판씩 두는 방식)라고 되어 있지만 스위스리그는 토너먼트처럼 첫판이 매우 중요하다. 첫판을 지게되면 패자조로 밀리기 때문에 입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관수는 늘어나지만 혹독한 면은 그대로 살아있는 방식인 것이다. 백동원 5단은 열렬한 바둑동호인으로 직장대회의 단골멤버이며 광주 생활체육협의회 유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광주시청의 강자

바둑소식. 이세돌 등 4명, LG배 8강 진출. 이세돌, 박정상, 한상훈, 온소진이 LG배 세계기왕전 8강에 진출했다. 이세돌 9단은 6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 대회 16강에서 중국의 왕웨이 8단을 177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8강에 올랐다. 한상훈 초단은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을 226수 끝에 백 불계로 제압, 파란의 주인공이었다. 온소진 3단은 일본의 야마시타 케이오 9단을 꺾고 박정상 9단도 중국의 쑤이허 6단을 202수 끝에 백 불계로 잠재우고 8강에 합류했다. 목진석 9단과 조현현 9단은 각각 장쉬, 후야오위에게 패했다. 대회 우승상금은 2억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

굿모닝 잉글리쉬 <921> I think I have sprained my ankle 발목을 뺨 것 같습니다. A: I think I have sprained my ankle. B: I can give you a poultice, but I suggest that you go to the doctor to get an X-ray. A: You think it's that bad? B: Well, I can't say for sure, but you might have cracked a bone. A: 발목을 뺨 것 같습니다 B: 스포츠를 드리죠. 하지만 X-ray를 찍으러 의사한테 가 보셔야 해요. A: 그 정도 심한 것 같습니다? B: 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골절을 한 것 같습니다. I can't say for sure =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prain : v. 삐다 poultice : n. 스포츠제 crack : v. 파열되다, 금가다 기브스를 해야 합니까? = Must I wear a cast?

오하오우 니혼고 <921> 立派(りっぱ)だなお宅ですね 훌륭한 저택이군요. A: 立派(りっぱ)だなお宅ですね。いっお建(た)てになったんですか。 B: 2年前(ねん)ですよ。さあ どうぞお掛(か)けください。 A: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つまらない物(もの)ですが、どうぞ皆(みな)さんと召(め)し上(あ)がってください。 A: 훌륭한 저택이군요. 언제 지으셨습니까. B: 2년전입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A: 감사합니다. 이거 보잘 것 없습니다만, 함께 드세요. 立派(りっぱ)だ: 훌륭한하다 お宅(たく): 택 お建(た)てになる: (집을)짓게되다 お掛(か)けください: 앉으세요 召(め)し上(あ)がる: 드시다

니하오 쑹구위 <112> 生活很方便 생활이 아주 편리하다. A: 从你家来这几方便吗? Cóng nǐ jiā lái zhè fāngbiàn ma? 쑹 니 짜야 라이 쑹 팽 방 비엔 마? B: 挺方便的, 很多车都到。Tǐng fāngbiàn de, hěn duō chē dōu dào. 텡 팽 비엔 더, 현 두워 처 도우 따오. A: 对, 这里离市中心很近。Dui, zhè lǐ shì zhōngxīn hénjìn. 웨이, 짜 리 리 스 쑹 신 현 진. B: 生活很方便。Shēnghuó hěn fāngbiàn. 쑹 후워 현 팽 비엔. A: 너희 집에서부터 이곳에 오는데 편리하니? B: 아주 편리해, 매우 많은 차들이 모두 이곳에 도착하거든. A: 맞아, 이곳은 시내 중심으로부터 아주 가까워. B: 생활이 아주 편리하지. 方便 [fāngbiàn] 편리하다

한자 이야기 <538> 七顛八起 (칠전팔기) 일곱 칠, 넘어질 전, 여덟 팔, 일어날 기. 칠전팔기(七顛八起)는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선다는 뜻으로, 거듭되는 고난(苦難)과 실패(失敗)에도 좌절(挫折)하지 않고 재기하여 분투함을 비유한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속성의 '오목이'에 견주어 '오목이 정신'이라고도 한다. 이 '칠전팔기'는 중국어 사전에는 없고 한국어와 일본어 사전에만 있는 사자성어이다. 여기서 '7'과 '8'은 '수없이'를 나타내는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다. '칠전팔기'에서 변용되어 '4전5기'라는 말도 나왔다. '4전5기 신화'의 주인공은 1970년대 권투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고(故) 홍수환 선수이다. '지옥에서 온 사형 집행수'라는 악명을 떨쳤던 카라스키야와 맞붙어 네 번이나 다운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결국 KO승을 거둔 것에서 불어낸 말이다. 또 한때 스포츠 신문은 장식하였던 '박찬호 3전4기 완투 12승'의 '3전4기'는 박찬호 선수가 3번 잇달아 패하다가 4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기사에도 '13전 14기에 끝내 이뤘었다'라는 표현하였는데, 이것도 칠전팔기의 응용표현이었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티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